

尹, 사우디 일정 시작...“정상회담서 국제평화 기여 논의”

사우디 일간지 알 리야드 인터뷰
“북핵 도발·개발 차단 적극 협력”
“네움시티 건설 한국 좋은 동반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사우디 회담’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과 관련한 평화 기여 방안 및 경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사우디 일간지 알 리야드와 사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은 양국이 세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함께 기여할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 및 오찬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라며 “다양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 국제 및 역내 주요 플레이어인 사우디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러북 군사협력은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한 도발일 뿐 아니라 안보리 결의를 의결한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세계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모든 나라의 평화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가 국제 무대에서 핵 비확산에 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개발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사우디와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압도적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갖춰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것이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로 하는 자금과 물자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해 체결한 29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의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은 (11월 방한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전체 해외 건설 수주액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최대 건설 수주 시장이라면서 “지난해 11월 방한 이후 이 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실질적 성과가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기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건설이 리야드 시내 사우디 내 무부 청사를 지었던 점을 언급하며 “건설-인프라는 오랜 기간 양국의 주축 협력 분야였다. 앞으로 사우디가 내륙 시티를 건설하는 과정에도 한국 기업이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원유 공급처로 사우디의 안정적 원유 공급은 양국의 경제 발전에 함께 기여해왔다”며 전통적 에너지 협력을 넘어 향후 수소 공급망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정부 차원의 협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빈 살만 왕세자 주도로 에너지 원 다각화, 제조업 육성 등 산업 다변화를 통해 경제 구조 틀을 일신하는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중점 협력 국가 중 하나”라며 “비전 2030은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한 사우디의 미래 성장 전략을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시대에 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스마트팜 기술을 보급하는 데도 양국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 드라마와 K팝을 매개로 양국인 간 호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진취적이고 개방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사우디 문화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오광택 기자 kroh@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 모하마드 빈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부주지사와 공항 내 접견실에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성·삿대질 정쟁...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맹탕’으로 끝나나

대부분 상임위 이번주 막내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장사가 ‘맹탕 국감’이란 지적 속에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결입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임위는 이번 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느 때보다 ‘속 빈’ 국감이란 비판이 많다. 여야 공히 실력을 겨룰 만한 국정 사안들이 즐비했지만, 정쟁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감이 일찌감치 힘이 빠진 데는 무엇보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상임위별 중계 영상을 보면 여야 의원들은 초반에만 국감장을 반짝 지키다 오후가 되면 졸졸이 자리를 비우는 장면이 다수 목격됐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2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감장에 의원이 없고 증인과 참고인만 넘쳐난 상임위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총선이 코앞이니 너도나도 단풍칠 지역구 행사에 나간 것”이라고 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의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도 ‘김 빠진’ 국감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감 때면 으레 서너명은 등장했던 야당 소속 ‘국감 스타’가 극히 적은 것도 그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채상병 사망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현 정권을 공격할 소재가 많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서울 강서구정장

보궐선거가 국감 기간에 치러진 것도 ‘내실 국감’의 한계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올해는 유독 여야 의원들 모두 열의가 없어 보였다”며 “자료 요구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국감날에도 오후가 되면 절반 가까이 자리를 떠 의원석이 많이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은 실종됐고, 곳곳에선 고성과 삿대질 등 불성사나운 장면만 난무한 ‘정쟁 국감’이 연출됐다.

심지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참고인 선정을 놓고 아직도 여야 간 기 싸움 중이다. 국감 마지막 날인 26일까지도 증인·참고인 자리는 비워둔 채 여야 공방전만 반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매년 국감철 제기된 국감제도 개선 주장은 올해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김기현, 이재명 대표에 ‘민생협치회담’ 제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2일 “여야 대표 민생협치 회담을 개최하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언제 어디서든 형식,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건 풀고 신뢰는 쌓아가도록 하겠다”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의문”이라며 “정쟁이 아닌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민주당과 협의회 나갈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정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세신책의 하나로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다시 한번 민생 관련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김기현 2기’ 체제의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한총리 “경제 복합위기...약자 보호 정책 집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지금까지 경제 상황은 ‘퍼펙트스톰’ 하에 있다”며 “단기적으로 약자 보호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금리, 물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내외 위기 요인들을 지적하며 “이런 퍼펙트스톰 상황에서도 경제 위기에 빠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가장 타격받는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한 것을 언급하며 “대외 안정성, 수출 역동성 등을 그 이유로 들었으나, 우리 국민의 어려움은 사회적 약자 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단기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당정 협의회에서 물가와 에너지 수급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농축산물 비축 물량 방출, 대형마트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든든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